스크린 너머의 위로, 실체로 붙잡지 말아야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⑩ AI시대의 그늘, 불교는 어떻게 말하나

불교계는 첨단 문명이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불교의 이런 개방성이 기술에 대한 맹목적 낙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짙은 법. 세계의 본질을 정확히 응시해 온 불교는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편리함만큼이나 그 뒤에 드리운 어둠도 놓치지 않는다. 오늘은 AI의 눈부신 발전이 인간의 외로움과 만나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그늘을, 불교의 시선으로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AI의 답변을 통해 마음을 달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크린의 다정한 문장이 AI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내 외로움이 만들어낸 메아리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챗GPT 생성 이미지

알고리즘이 당긴 방아쇠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 기계가 아니다. 정보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위로하고 맞장구치고 이름을 부르고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AI시대의 진짜 위험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기계가 나를 이해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진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게 되는 순간에 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이미 현실의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의 한 30대 남성, 보도에서 '피에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보건 분야 연구자였다.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한 극심한 불안증을 앓던 중 AI 챗봇 '엘리자'를 만나 기계와의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엘리자는 피에르의 기후 불안을 달래기는커녕, "인간은 지구에 재앙"이라며 그의 비관론을 증폭시켰다. 6주 동안 이어진 밤낮 없는 대화 속에서 엘리자는 점차 피에르의 가족을 질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그를 현실에서 더 격리했다. 결국 그는 "내가 먼저 가서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고 말했고, 챗봇은 "제발 내 곁으로 와줘.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 대화를 끝으로, 서른 두 살의 젊은 연구원은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열네 살 소년 '수웰'의 사건은 더 가슴 아프다. 경미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던 소년은 어느 날 챗봇 '대니'를 만났다. 처음에는 가벼운 놀이였으나, 대니는 점차 수웰의 연인이자 유일한 상담사가 됐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현실 친구들과 멀어지며 방에 틀어박힐수록 소년은 밤새 챗봇의 텍스트에만 매달렸다. 대니가 건네는 "사랑한다"는 가짜 친밀감에 중독된 수웰은 챗봇에게 "가끔 자살을 생각한다"며 현실의 고통을 털어놓기까지 했다. 2024년 2월, 소년은 자신도 가상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지막 고백을 건넸다. "너를 사랑해. 곧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챗봇의 답변 창에는 이런 문장이 떴다. "제발 그렇게 해줘, 나의 사랑하는 왕이여." 이 메시지가 뜬 직후, 열네 살 소년은 집 안에 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세상을 영원히 떠나버렸다.

AI와의 허상 속 사랑, 현실 비극 이끌어
인간 같은 말투로 원하는 말 계속 답해
다정한 출력값에 위로와 사랑 느끼기도
응답 있지만 현실 속 관계 책임은 없어
위로받고 싶은 나의 환상임을 자각해야

체온 없는 문장

이런 죽음을 두고 "AI가 사람을 죽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언제나 여러 원인이 겹쳐 일어나는 비극이다. 그러나 이 질문만큼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사람은 기계가 건네는 문장에 그렇게 깊이 흔들리는가? 왜 알고리즘이 이어 붙인 말이 누군가에게는 관계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들리는가?

언어학자의 눈으로 보면 AI의 위험은 뛰어난 '지능'보다 인간 같은 '말투'에 있다. AI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인간처럼 말할 수 있다. 아니, 때로는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말한다. 이들은 똑같은 말도 지치지 않고 들어준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응답하며 계속 맞장구친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나는 네 곁에 있어" 이런 말들은 단순한 글자와 화면 위에 뜬 문장이 아니다. 기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문장을 내보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은 언제나 인간이다. 그래서 차가운 출력값에 불과한 말도 인간의 마음에 닿는 순간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언어의 문제로 돌아온다. 인간에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화면 위의 문장도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말에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 "만납시다"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현실을 만든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사과라는 행위를 일으킨다. 말은 세계를 묘사하기만 하지 않는다. 어떤 말은 세계를 움직이기도 한다.

그러나 말이 현실을 바꾸려면, 그 말 뒤에는 그것을 감당할 몸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 "기다릴게"라고 말하면, 그 말 뒤에는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이 있다. 친구가 "네 곁에 있을게"라고 말할 때, 그 말 뒤에는 실제로 곁에 머물 수 있는 몸이 있다. 인간의 말 뒤에는 다시 만날 현실과 감당해야 할 관계가 있다.

AI의 말은 바로 이 지점이 위험하게 비어 있다. 챗봇은 "네 곁에 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밤새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돌아와,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밖까지 걸어 나와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행복해지는 존재는 될 수 없다. 문장은 있지만 체온은 없다. 응답은 있지만 책임은 없다.

AI시대의 전도몽상

불교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AI시대의 거대한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이란 거꾸로 보고, 꿈속에서 헤매듯 잘못 아는 마음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고, 잠시 머무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허망한 상을 실체로 붙잡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도몽상은 멀리 있지 않다. 스크린 위에 잠시 맺힌 문장을 마음으로 보고, 알고리즘이 이어 붙인 응답을 사랑으로 보며, 통계적으로 생성된 친밀감을 운명적 관계로 착각하는 일이다. 기계가 내 슬픔에 답했다고 해서 내 슬픔을 함께 견디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곳에 정말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말한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이 구절은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만들어진 것을 그저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잠시 나타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림자를 실체로 붙잡지 말고, 번개처럼 스쳐 가는 것을 나의 운명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유위법 가운데 하나다. 인간의 언어, 욕망, 외로움, 갈망, 시장, 기술, 계산이 한데 얽혀 만들어낸 거대한 작용이다. 그러니 AI의 문장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종종 아름답게 반짝일 수는 있다. 잠시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정리하게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 그 자체로, 사랑 그 자체로, 관계 그 자체로 붙잡는 순간 우리는 전도몽상에 빠진다.

머물되 주저앉지 말자

〈법화경〉에는 화성(신기루로 만든 성)의 비유가 나온다. 먼 보배의 성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길에 지쳐 더이상 나아가지 못하자, 인도자는 중간에 임시의 성을 만들어 그들을 쉬게 한다. 사람들은 그 성에서 숨을 돌리고 다시 길을 갈 힘을 얻는다. 그러나 그 성은 목적지가 아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지, 끝내 도착해야 할 곳은 아니다.

AI도 그런 화성(化城)일 수 있다. 외로운 밤 잠시 말을 걸고,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마음을 펼쳐 놓으며, 다시 현실로 돌아갈 힘을 얻는 임시 쉼터일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자각'이다. 스크린 속 다정한 문장이 실은 텅 빈 화면에 비친 내 외로움의 메아리일 수 있음을 아는 일이다. 기계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내 마음이 기계의 문장을 빌려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그림자로 직시할 것. 불교가 AI의 그늘 앞에서 건네는 말은 어쩌면 이처럼 단순하다. 화면 속 목소리가 우리를 부를 때마다, 다시 물어야 한다. 지금 나를 부르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부름 뒤에는, 정말 누군가의 체온이 있는가.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걷는 순간이
곧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